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외동포청 인천설치 확정!
		배포일자	2023년 5월 23일(화) 총 8매	
담당 부서	산업입지과	담당자	• 스마트산단팀장 최덕중 ☎440-4286 • 담당자 도경재 ☎440-428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산업단지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 본격 추진

- 노후산단을 혁신적역동적 초일류 산업공간으로 조성해 기업성장 지원 -
- 일하기 좋고 시민이 찾아오는 문화예술, 상업 공간으로 탈바꿈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노후된 산업단지를 기업이 일하기 좋고, 시민이 찾고 싶은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 산업화와 지역 총생산과 고용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 인천형 산업문화 융복합 공간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부평·주안산단이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가속화 생태계 구축, 사업화사업재편 역량 강화, 고용

친화 공간 구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27개 세부 사업에 3,250억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부처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남동산단이 본 공모에 선정돼 2022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조기업 친환경·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한 ‘스마트 융합제조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지난 2019년 남동산단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부평·주안 산단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앞으로 디지털전환, 저탄소, 스마트 인재양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기술 사업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남동산단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소한 ‘스마트화관’에서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스마트 제조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개소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연구개발부터 품질인증에 이르기까지 기술 역량 향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교통정보, 안전 모니터링, 화재감시·대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형 산업문화 융복합 공간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과 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인천 전체 산업단지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남동산업단지는 입지 경쟁력, 특화된 산업문화, 시민·근로자를 중심으로 휴식·쇼핑·체험을 위한 공간(점)을 설정하고, 각각의 대상지를 길(선)로 연결해 최종에는 중심축(면)으로 확대하는 점·선·면 개념을 도입해 3개 축·5개 권역으로 중심축과 구역별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안산업단지는 시민과 근로자, 청년이 주도하는 신성장산업 중심 산단으로 산업 공간 가치를 재창조할 계획이며 부평산업단지는 청년 융복합센터 등 앵커시설 구축을 통해 문화와 비즈니스가 함께하는 초일류 산업단지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찾고 머물고 싶은 혁신적·역동적 초일류 산업 공간으로 대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붙임 1. [별첨]보도자료 관련 사진 1부.
2. [참고]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관련 사업개요 1부. 끝.



<2023. 4. 21.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비전선포식>



<인천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참고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사업개요 (공모)

□ 추진배경

- 기존 산업단지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체계 도입 필요
- 지역이 혁신계획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부처별 사업을 패키지로 하여 지원

※ (추진근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법)」

□ 공모개요(2차)

- (공 모 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前 산단 대개조)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전담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대상) 시·도당 1개 거점산단 + 연계지역(N개) 선정
- (공모선정) 인천(부평·주안), 전남(광양), 부산(신평·장림)

* (전국지정 : 15개) ('20) 5개 / ('21) 5개 / ('22) 5개

** (인천선정/1차) '20.5월, 남동산단 사업지구 선정(거점-남동/ 연계-부평주안, 송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적·역동적 산업 공간으로 대전환을 통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 (사업위치) (거점) 부평·주안, (연계) 인천기계, 인천지방, 뷰티폴파크
- (사 업 비) 총사업비* 3,250억원(국2,198, 시520, 민간532) 계획(제시)

* 정부부처 검토 및 국회 심의 후, '23.12월경 최종 사업비 확정 예정

- (사업내용) 디지털가속화 생태계 구축, 사업화·사업재편 역량강화, 고용친화 공간 구축, 근로환경 개선 등 추진(27개 세부사업 예정)

- (추진일정)

사전 조사	공모 시행	접수	평가	후보지선정	컨설팅	예산 반영
산업·국토부 → 광역시자체	산업·국토부 → 광역시자체	광역시자체 → 전담기관	민간 평가위원회	경쟁력강 화 위원회	자문단 → 지자체	관계부처 지자체
'23.1.26 '23.2.9	'23.2.27~	~ '23.3.27	~'23.4.18.	~'23.4.中	'23.5~11월	'23.12월

참고 2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사업개요 [공모]

□ 추진배경

- '20년 「스마트산단 신규단지」 공모 선정('19. 9., 산업부)
 - * 스마트산단에 디지털·그린 뉴딜을 융합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20.9.)
 - '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 선정('23. 4., 국토부·산업부 합동)
 - *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거점산단(부평·주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동시 선정('24.~)
- ※ (추진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기술을 산단에 적용, 제조혁신과 산단 고부가가치화에 의한 산업단지 체질개선 도모
- 산업·공간·사람에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하여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이 입주한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 사업개요 [남동산단]

- (사업위치)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구 고잔·남촌·논현동 일원)
- (사업기간) 2020.~ 현재
- (총사업비) 1,002억원(국 642, 시 176, 민 184) * '23.4.현재 기준
- (사업내용)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재 양성 등, 총 8개사업 추진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1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센터 구축	216	'20.~'23.	추진중
2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130	'20.~'23.	추진중
3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84	'20.~'22.	완료
4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77	'20.~'22.	완료
5	스마트제조 고급인재 양성	115	'21.~'22.	완료
6	지역특성화 제조기반 구축(스마트센서)	35	'22.~'23.	추진중
7	지역특성화 제조기반 구축(스마트모터)	45	'22.~'24.	추진중
8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300	'23.~'25.	신규('23.~)

※ ('24.~) 부평·주안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신규) 추진 예정

참고 3

산업단지 「인천형 산업문화 융복합 공간 조성」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적)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노후 산단의 부정적 이미지 전환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소비공간과 상업공간으로 전환
- (비전) 산업단지 랜드마크 구축을 통한 국내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
‘밤에도 빛나는, 초일류 산업공간으로’
- (내용) 브랜드 문화체험 공간(소비재 브랜드 체험), 복합문화체험 공간(사람중심 문화예술 체험), 생태문화 체험 공간(남동유수지 활용 생태체험)

* 남동산단/부평·주안산단 마스터플랜 수립 →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 예정

□ 기대효과

- (산단 진흥) 문화·예술 체험공간, 협업공간, 생태탐방로 조성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산업의 전반적인 개조 및 진흥 도모
- (도시재생 활성화) 산단의 주·야간 명소화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도시의 상징성, 공공성 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성 확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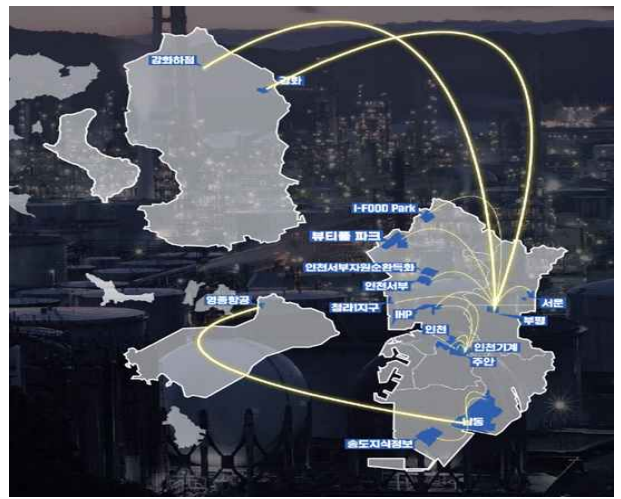


참고 4

인천 산업단지 현황

□ 산업단지 조성현황

- (조성완료) 총 15개소
 - (국가) 3개소(남동/ 부평/ 주안)
 - (일반) 11개소
 - * 지방/ 기계/ 서부/ 강화하점/ 청라1지구/ 송도지식정보/ 뷰티폴파크/ 강화/ 서운/ 서부자원순환특화/ I-Food파크
 - (도시첨단) 1개소(청라IHP)
- (조성 중) 총 5개소
 - * 남동도첨/ 영종항공일반/ 계양테크노도첨/ 남촌일반/ 계양일반/ 검단2일반



□ 노후 산업단지 현황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는, 총 7개소(국가 3, 일반 4)

단지명		준공년도	경과년도	단지명		준공년도	경과년도
국가 산단	부평	1969년	54년	일반 산단	인천기계	1971년	52년
	주안	1974년	49년		인천지방	1973년	50년
	남동	1997년	26년		강화하점	1994년	29년
					인천서부	1995년	28년

□ 산업단지 경제비중 (인천 제조업 대비)

- 산업단지는 인천 전체 제조기업 33,574개사 중 13,167개사(39.2%)가 입주해 있으며, 인천 제조업에서 생산(65.76%), 수출(23.43%), 고용(61.1%)를 차지

(‘21년말 기준)

구 분	전 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현황	비율	현황	비율
사업체수 (개사)	579,050	33,574	5.80%	13,167	39.22%
생산액 (억원)	17,812,834	778,810	4.37%	512,178	65.76%
수출액 (백만불)	588,663	43,683	7.42%	10,234	23.43%
고 용 (명)	4,217,537	250,357	5.94%	152,967	61.10%

* (자료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전국산업단지통계), 통계청(시·군·구 제조업통계, 광업제조업조사)